

덕의 윤리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안의 모색

김 희 수

(천안대학교 교수/기독교윤리학)

I. 서론

II. 청소년문제 이해의 사회문화적 기초

1. 근대 및 포스트모던사회의 가치관
2. 박탈감과 소외감

III. 청소년 문제의 현실

IV. 덕의 윤리를 통한 대안모색의 가능성

V. 결론

• ABSTRACT •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the post-modern society infected the Korean society very badly. Most Koreans consider a 'successful life' as possessing political and bureaucratic power, high social status, and material wealth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se can make themselves dominate and control others, secure legal protection and privileges, have an easy life, and enjoy sensual pleasure. So people focus every aspect of their life from receiving education to doing business on achieving these three. The teen agers of Korea are also deeply infected by this view of life of the adults. This was one cause of making the youth form a wrong image of a successful life. In addition to this, the values of the modern industrial and the postmodern society have also affected the youth to form a wrong image of a successful life. Having a wrong image of a successful life push the youth to break social ethical rules and commit juvenile delinquencies. To reform the view of values of the youth, we must help the youth to acquire a new paradigm of happy life, healthy ethical principles, and virtues. But to make this possible, we must first educate the adults and change their image of successful life and happy life. For this change of the adults and the youth home, school, society, and government have to work together very hard.

Keywords: youth problem, virtue, happiness

I. 서론

우리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 청소년과 연관된 지표들은 우리에게 윤리적 비전과 책임의 중요성을 새삼 심각하게 일깨워 준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사회는 부패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뇌물과 부정행위 등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안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이 9%로 모두 17%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¹⁾ 이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확천금을 위해서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준은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보다 요령을 가르치면서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을 내면화시키고 있다”며 “한 번의 시험에 일생이 결정될 수 있는 대입제도와 부정부패에 대한 내면화, 한탕주의 등이 결합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치관 개인이나 집단이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추구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윤리관의 근거가 되는 관념이다. 예를 들면, 행복, 덕스러움, 정의, 평등, 평화, 민족애, 애국

1) 한겨레신문, 2004. 11. 25.

2) Ibid.

심, 사랑, 아름다움, 예술, 복지, 명예, 사회적 지위, 권력, 가정, 종교적 신앙, 물질적 부, 안락한 생활 등이 다 가치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가치들은 행동의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이 사물들의 값어치와 인간의 태도 및 행동들의 고상함과 천박함,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인간행위의 기준과 근거이다.³⁾ 그러나,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영적·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물질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을 무시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치관과 윤리관이 뒤틀리게 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 되어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흔히 ‘성공적인 삶’의 척도를 물질적 부와 권력의 소유 여부에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남위에 군림할 수 있으며, 안락함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물질적 부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온갖 종류의 학원을 다니는 것도, 뇌물을 주고받으며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다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서구유럽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사회로 밀어닥친 근대 산업사회 및 포스트모던사회의 사고도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잡다하게 혼재되어 소용돌이치며 가치관의 왜곡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 사고방식과 비인간화, 기능성, 효율성, 물

3)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p. 100.

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시장논리, 무한경쟁, 절대규범의 와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자유, 평등, 남성위주 가부장제의 와해와 여성해방, 가정과 가족의 의미 변화, 외설적인 대중문화의 득세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균형을 상실한 삶의 틀로 인해 방황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심각한 소외감과 박탈감과 정신적 공백에 시달리며, 또 한편으로는 동물적 본능과 쾌락의 충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처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회 속으로 던져졌으며 기성세대가 제시한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한 경주에 내어 몰린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경주에 이기기 위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따라가기 버거운 경주에 대한 회피와 항거,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적 제재나 임상적인 치유방법 제시보다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현실과 시대적 사회적 요인 분석, 그리고 기독교 사회윤리학적인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또는 문제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청소년문제 이해의 사회문화적 기초

서론에서 요약적으로 언급한 원인들에 대해서 근대 및 포스트모던 사회의 가치관과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 일반적으로 비행이란 법률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규준으로부터 이탈된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 근대 및 포스트모던사회의 가치관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또는 현대주의는 19세기의 기성 가치관이 과학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20세기의 현대인들에게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의 부르주아 사회가 굳게 믿었던 사회적·경제적·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배격하였으며,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자유와 평등, 도시의 시민생활과 기계문명을 향유하고자 하였다.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인류가 겪고 있던 자연재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 빈곤 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는 세계 제 1·2차 대전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전쟁이 활궤고 간 참혹한 폐허를 보며 인류는 인간성의 잔인함과 과학의 파괴성에 대하여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거듭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과학문명의 광기와 파괴성을 목격하고 난 뒤 산업사회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1960년대 이래 미국·유럽에서 일련의 새로운 문화조류인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되었다. 후기산업사회, 소비사회, 다원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회의, 절대이념의 와해와 논리의 다원화,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과 여성운동, 기업의 다국적화, 개성 중시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⁶⁾ 이와 같은 이념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가치관, 윤리관, 아름다움의 기준, 성공의 기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5) <http://100.daum.net/DIC/detail?id=1339050&sname=모더니즘&ty=1>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3390500&p=모더니즘>

6) <http://100.daum.net/DIC/detail?id=1967120&sname=포스트모더니즘&ty=1>

이러한 이념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아울러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컴퓨터과학, 의학, 유전학 및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물질문명의 질 향상, 물질적 풍요, 질병의 퇴치, 생명 연장 등과 같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전 역시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관 등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무력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생산은 결혼한 부부의 성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했었다. 그리고 이 대원칙 아래서 성윤리가 만들어지고 지켜져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의 생산이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 없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졌다. 심지어는 생명의 복제도 가능케 되었다. 그에 따라, 성관계도 부부 사이의 자녀 생산과는 무관하게 쾌락 극대화의 한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당연히 성윤리, 결혼관, 가족의 의미 등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오늘 우리는 기능·효율·학벌·지위·물질소유에 의거한 인간 가치 평가, 시장논리와 경쟁, 빈부격차의 심화, 탈공식, 탈규범, 탈논리, 상대주의, 극단적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개성,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외, 외설적 대중문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사회의 특징들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실상 근대사회에서 통용되던 전통적인 윤리가 의미를 상실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사회의 부정적 특징들이 청소년문제의 직접적인 원인들로 간주되는 경제문제, 가정문제, 입시위주의 교육,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매체 형성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숙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 던져져 있다.

2. 박탈감과 소외감

오늘날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20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의식과 좌절감과 증오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글록(C. Y. Glock)은 산업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경제적 박탈감, 사회적 박탈감, 육체적 박탈감, 윤리적 박탈감, 정신적 박탈감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⁷⁾ 경제적 박탈감은 사회적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 노동과 기여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느낌,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등의 재화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나 생활수준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박탈감은 명성, 권력, 지위, 사회 참여에의 기회와 같은 사회적 보상의 분배에 있어서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의미한다. 윤리적 박탈감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들이 개개인의 생활을 영위해가는데 있어서 유효하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생겨난다. 지배적인 가치관들이나 윤리들이 기득권자나 상류층을 위한 것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박탈감은 이기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추구함으로써 인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소외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공허감을 의미한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일

7) Charles Y. Glock, "The Role of Deprivation in the Origin and Evolution of Religious Groups," in Robert Lee and Martin E. Marty (eds.) *Religion and Social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p. 26-29.

상생활을 병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로는 소외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학벌, 재산소유의 정도, 권력,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 등과, 제품의 생산방법과 과정과 판매과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가 기계화되어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순응하고 적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다수의 현대인들이 초월자에게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지맨(M. Seeman)은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의 감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⁸⁾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치, 산업, 사회질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과 비관주의, 개인이 그가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의 결여로 인하여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나는 무력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확립된 질서에 상반되며 메스컴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고립감, 자기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며 자신의 인격이 자율성과 역할을 거부당하고 다른 목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느낌으로서 발생하는 자기 소외감, 사회적 규범들이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규범상실감 등이다. 영화, TV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대중매체가 부유층의 호사스런 삶을 공개하고 소비풍조를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포자기적이고 냉소적인 생활태도를 유발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성취를 시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청소년들의 길잡이와 울타리와 온상이 되어주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교육도 현실사회의 잘못된 성공관에 근거하여 교

8) Melvin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Dec. 1959), pp. 783-91.

육을 부와 지위와 권력과 쾌락 확보를 위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므로 인해 삶의 참된 의미를 교육하거나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가정도 학교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III. 청소년 문제의 현실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해당하는 시기의 문제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이 자신과 주변 환경 속에서 겪는 고민, 갈등,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폭력, 약물남용, 흡연, 자살 등 일탈행동을 의미한다.⁹⁾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다.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심각한

9)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이라 부른다. 그것을 ‘범죄’(crime)라 부르지 않는 까닭은 이들은 미성년자들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범죄들이 청소년기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즉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犯罪少年)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그리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report.campus.daum.net/re-detail.html?no=RR000234975&qquery>

=%C3%BB%BC%D2%B3%E2%B9%AE%C1%A6 자료제작일 05-1-7 자료번호 #000234975

cf.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행동론』(서울: 학지사, 2002), pp. 19-21,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울:나남출판, 1998), pp. 109-110.

것으로서 24.2%가 흡연을 들었고 다음으로 학교·집단 폭력 14.4%, 가출 11.6% 순으로 대답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이혼 등 ‘가정문제’와 성적 등 ‘입시위주의 교육’이 각각 29.2%, 24.7%로 가장 많았고, 탈선 청소년 그룹(13.5%)이나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의 영향(9.4%)도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¹⁰⁾ 이 설문조사가 비록 전국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흡연자는 1,100만명 정도로 이중 89.9%가 2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해 담배중독에 이른다. 전체 흡연자의 27.5%는 청소년기인 16~18세에 담배를 배우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5세 이하도 6.4%인 셈이다.¹¹⁾ 흡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동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음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엄광섭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3.9%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1.7%는 중학교 3학년 이전에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자들이 술을 처음 마셔본 시기는 중학교 때가 54.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이전이 27.1%, 고등학교 18.2% 등으로 조사될 정도이다.¹²⁾

학교폭력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청이 2005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가해학생 2,576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일진회를 비롯한 불법 폭력서클 120개를 해체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미화하거나 선동해온 인터넷 사이트 605개를 적발해 이 중 105개에 대한 폐쇄심의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거의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을 때린 뒤 죄의식을 느꼈다고 답

10) 연합뉴스, 2005. 3. 18.
 11) 국민일보, 2005. 4. 4.
 12) 중앙일보, 2005. 2. 3.

한 학생들은 39%에 그쳐 무려 61%에 달하는 학생들이 동료학생들을 크나큰 고통 속에 떨어트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가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의하면 청소년 가출 18,276건 중 초등학생이 17.7%(3,248명)이었으나 2001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다. 전체 청소년 가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가출 증가원인은 이혼율 증가, 경제 불황, PC방과 짬질방 등 가출 은신처 증가, 인터넷 보급에 따른 유해환경 확산 등으로 분석됐다.¹⁴⁾ 또한 청소년들의 정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41.1%)가 ‘할 수 있다’(34.9: 남학생 37.3%, 여학생 32.3%)보다 높았다. 순결에 대해서는, ‘남자가 지켜야한다’에 45.4%(남 38.3%, 여 53%), ‘여자는 지켜야한다’에 57.2%(남 54.6%, 여 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깊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 1,599명 중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가 70.3%에 달했다. 성매매 대가로 단순히 잠자리 제공이나 PC방비 대납, 휴대폰이나 MP3 등 선물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성매매에 대한 도덕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상 청소년 중 51.4%가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와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¹⁵⁾

같은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국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올해의 낙태 시술 건수는 모두 35만590건으로 추산됐다. 이 중 미혼 여성의 낙태는 14만7360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

13) 연합뉴스, 2005. 4. 12.

14) 국민일보, 2005. 2. 17.

15) Ibid.

따르면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미혼여성 20~24세, 기혼여성 30~34세였으며, 15~19세 미성년자 비율도 3.6%나 됐다.¹⁶⁾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들 외에도 최근의 컴퓨터 과학의 발달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접속 창구 중 인터넷 채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2000	2001	2002	2003	2004
44.8%	53.3%	68.2%	79.5%	80%이상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음란 사이트 접속, 채팅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1일 평균시간은 무려 2시간 12분에 달했다. 인터넷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 64.5%,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를 느낀다’ 56.4%,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진다’ 53.6%, ‘성격이 나쁘게 변한다’ 17.4%라고 답했다.¹⁸⁾ 그리고 자살 역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2005년 5월 3일 통계청의 ‘청소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5~19세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률은 운수사고 12.3명에 이어 자살이 8.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¹⁹⁾

16) 조선일보, 2005. 9. 13.
 17) 머니투데이, 2005. 4. 18.
 18) 국민일보, 2005. 1. 19.
 19) 경향신문, 2005. 5. 4.

IV. 덕의 윤리를 통한 대안모색의 가능성

왜곡되고 병든 사회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덕성을 함양시켜주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를 건전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왜곡된 가치관이 이미 폐부 속까지 깊이 물들어버린 기성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는 없을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순이 돋을 때 잘 가꾸면 그 새순들이 자라나 숲 전체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살려내듯이, 비록 기성세대가 썩어 있을지라도 청소년들을 잘 키우면 건강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곡된 사회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가치관과 덕성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교육과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덕적 덕들 중 어느 하나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습관에 의해서 이 능력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다.”²⁰⁾ 필자도 모든 사람이 덕스러운 사

20)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Martine Ostwald (Indianapolis, Indiana: Bobbs-Merrill/Library of Liberal Arts Press, Inc., 1962), p. 33. Book 2, chap. 1, 1103a18-19, 24-25. 여기에서 “습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의미한다.

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을 덕스러운 성품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함양시켜주어야 할 윤리관과 덕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며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표현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표현이다. 첫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시편 8, 93, 96-99편에 의하면 ‘정의(세다카)’와 ‘평화(shalom)’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둘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물질적인 부를 누린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생명의 환희가 넘치게 됨”을 의미하는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²¹⁾

결국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여 온 생명체와 자연세계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²²⁾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근본목적이요 의미이며 인간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켜야 할 윤리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여 온 생명체와 자연세계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도록 하라”는 이 원칙은 기독교인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윤리의 대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21) Michael D. Guinan, O.F.M., *The Pentateuch*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0), pp. 24-26.

22)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서울: 동문선, 2004), p. 71.

삶의 기본적 원칙이 각자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삶의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관이 확립된 후에는 그에 합당한 덕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추구에 있다고 말한다.²³⁾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구성요소로서 외적요소(external goods: 물질, 친구, 가족, 자녀 등), 육체적 요소(the goods of body: 건강, 아름다움 등), 그리고 정신적 요소(goods of soul)를 들고 있다. 물질적 육체적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행복을 최상 최고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건은 정신적 요소(정신적 행동과 활동)라고 말한다.²⁴⁾ 그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덕에 부합되는 일종의 정신적 행동’²⁵⁾이라고 말하며 “행복한 사람은 그 행위가 완전한 덕의 표현인 사람”²⁶⁾이라고 말한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덕성이 제대로 함양된 사람이어야만 주어진 육체적, 물질적, 사회적 조건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함 즉 중용(median, mean)이라고 말하며 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덕스러운 행동은] 적합한 시간에, 옳은 목적을 위해, 올바른 대상(사람)에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중용이요 덕이 지향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요 과녁이다.²⁷⁾

23)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pp. 14-15. Book 1, chap. 7, 1097a30-1097b1.

24) Ibid., p. 19. Book 1, chap. 8, 1098b13-14.

25) Ibid., p. 17, Book 1, chap. 7, 1098a16-17, Ibid., p. 22. Book 1, chap. 9, 1099b25-26.

26) Ibid., p. 26. Book 1, chap. 11, 1101a14.

27) “A virtuous action has to be performed at the right time, toward the right object, toward the right people, for the right reason, in the right manner. This is the median

그리고 그는 이러한 덕으로서 용기, 절제, 관용, 당당함, 고매함, 부드러움, 진실함, 재치, 우정, 정숙함, 의분, 정의 등 열두 가지를 제시하였다.²⁸⁾ 이 덕들은 모두다 두 극단들 사이의 중용이다. 예를 들면, 용기는 만용과 비굴함 사이의 중용이고, 절제는 방종과 무신경함 사이의 중용이며, 관용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의 중용인 것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5:22-23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바와 같은 덕성들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함양시켜야 할 중요한 덕성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덕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는 미션계 학교와 교회학교(유년주일학교 및 중·고등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하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가정, 학교, 교회, 정부와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 전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전하지 못한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형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 자체와 가치관을 타락시킨 기성세대와 사회전반의 가치관 교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사회와 기성세대가 “정의, 평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는 사회 형성”을 기본적인 목표와 가치관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혁과 교육이 필요할

and the best course, the course that is a mark of virtue.” Ibid., p. 43. Book 2, chap. 6, 1106b20-23.

28) Ibid., pp. 41-48.

것이다.” 기성세대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적 흐름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살핌을 받고 훈육을 받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들이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함양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 선도, 재활교육을 위한 법규와 법령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청소년 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전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삶의 의미와 조건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학습방식을 개선하고 올바르게 조화로운 가치관 함양, 바람직한 윤리관 및 도덕성 함양,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션계 고등학교인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교육방향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십계’는 매우 바람직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시대와 삶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개인과 사회가 건강하고 조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혼란과 갈등과 일탈행동 또는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명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제시하고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Martine Ostwald, Indianapolis, Indiana: Bobbs-Merrill/Library of Liberal Arts Press, Inc., 1962.
- Glock, Charles Y. "The Role of Deprivation in the Origin and Evolution of Religious Groups," in Robert Lee and Martin E. Marty (eds.) *Religion and Social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 Guinan, Michael D. O.F.M., *The Pentateuc*.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0.
- Seeman, Melvi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Dec. 1959). pp. 783-91.
-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행동론』서울: 학지사, 2002.
-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서울: 동문선, 2004.
-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울:나남출판, 1998.
- 경향신문, 2004년 10월 5일, 2005년 2월 28일, 5월 4일.
- 국민일보, 2005년 1월 19일, 2월 17일, 4월 4일.
- 머니투데이, 2005년 4월 18일.
- 문화일보, 2004년 9월 14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4년 10월 12일, 2005년 2월 15일, 3월 18일, 4월 12일, 5월 19일.
- 조선일보, 2005년 9월 13일.
- 중앙일보, 2005년 2월 3일.
-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25일.